

주일한국문화원, 차세대 다원 예술 국악단체 '적감' 공연 개최

가야금과 판소리의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곡으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무대 선사

주일한국문화원(원장 박영혜)은 한국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전자음악과 미디어아트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차세대 다원예술 국악단체 '적감'의 공연을 선보인다.

'적감'은 김승호(가야금), 유석주(타악), 김의진(창), 김준표(신디사이저)로 구성되어 2022년 결성된 팀이다. 이들은 동시대 젊은 예술가들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과 정서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으며, 전통예술에 전자음악, 시각예술,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독창적인 다원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민속음악을 중심으로 한 가야금 산조와 판소리 무대가 마련되며, 2부에서는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곡과 한일교류의 장으로 일본 곡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일한국문화원 공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행사 포스터 이미지

붙임2 행사 개요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도교)	홍보담당자	홍보팀장	조은경 (+81-3-3357-5972)
		행사담당자	공연팀장	박지훈 (+81-3-3357-6052)

□ ‘적감’-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융합

○일시: 2026년 4월 8일(수) 19:00~

○장소: 주일한국문화원 2F 한마당홀 (도쿄도 신주쿠구 요츠야4-4-10)

○주최: 주일한국문화원

□ 출연자 프로필

적감-쌓고 모은다는 의미의 ‘적積’과 느낌이나 감정을 뜻하는 ‘감感’의 결합으로, 시시각각 관측되는 감정들을 쌓아가는 다원예술 전통음악 단체.

2022년 동시대 젊은 아티스트들의 예술적 감각을 통해 현대 한국인의 핏줄에 흐르는 얼을 일깨우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기획·제작·실연의 영역에서 국악, 전자음악, 시각예술, 연극 등 장르의 지평을 넘나들며 오감을 통합하는 다원예술활동을 추구.

2025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오늘:울림’ 캠페인 영상 출연

2025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GAJA 선정 다원예술 전시-퍼포먼스 ‘공명:한恨’

2024, 2025 ‘국악으로 먹고살기 콘서트’

□ 프로그램

1부에서는 가야금 산조, 가야금 병창, 25현 가야금 창작곡과 함께, 소리광대의 네 가지 덕목을 노래하는 단가 ‘광대가’, 그리고 판소리 ‘춘향가’ 중 이몽룡이 춘향을 처음 보고 사랑에 빠지는 장면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적감’이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곡을 중심으로 무대를 꾸미며, 일본 곡도 한 곡 선보일 예정이다.

